

주제 : “갈림길에 선 인간”

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에 부딪힙니다. 그러나 부딪힌 상황이 같아도 대응하는 방식과 그 결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. 새롭게 마주친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본성은, 나의 개성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한계 상황에서도 과연 우리는 존엄성과 숭고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? 익숙함과 낯섬, 이상과 현실, 순응과 거역, 규범과 야만,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에서 나의 인간성은 어떻게 변할지 고전문학을 같이 읽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.

1차 : 익숙함과 낯섬의 경계에 선 아이 (9월 24일)

헤르만 헤세, <데미안>, Demian: Die Geschichte von Emil Sinclairs Jugend (1919년) | 민음사(2000)

2차: 순응과 거역의 기로에 선 미래 청년 (10월 8일)

올더스 헉슬리, <멋진 신세계>, Brave New World (1932년) | (주)태일소담출판사(2015)

3차 : 이상과 현실의 갈림길에 선 중년 (10월 22일)

서머셋 모, <달과 6펜스>, The Moon and Sixpence (1919년) | 민음사(2000)

4차 : 승리와 패배의 경계에 선 노인 (11월 5일)

어니스트 헤밍웨이, <노인과 바다>, The Old Man and the Sea (1952년) | 문학동네(2021)

5차 : 규범과 야만의 기로에 선 조난자들(11월 19일)

윌리엄 골딩, <파리대왕>, The Lord of Flies (1954년) | 민음사(2002)

6차: 존엄과 파멸의 기로에 선 병든 인간 (12월 3일)

알베르 카뮈, <페스트>, La Peste (1947년) | 민음사(2011)

정원 및 교육 기간, 수강료 안내

- 대상 : 징검다리스쿨 부모인문학 과정 이수자
- 정원 : 10명 이내
- 기간 :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격주 3개월 진행
- 장소 : 사북공공도서관 2층 또는 지역청장년핫스팟 맘스탑

※지정 도서는 개별 구입하며 그 외 별도의 수강료는 없습니다.